

“11년 만에 스크린 컴백...설레네요”

복귀작으로 영화 ‘스위치’ 선택
두 아이 엄마 인생 바꾼 수현 역
“공감하고 어울리는 느낌 받아”



배우 이민정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눈 깜짝하니까 10년이 지났네요. (웃음)” 배우 이민정이 영화 ‘스위치’ 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소감을 밝혔다. 2012년 개봉한 ‘월드폴 라이프’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크다”고 기대했다.

“사실 영화에 대한 갈망은 계속 있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택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는 TV를 틀면 다 볼 수 있지만, 영화는 작품으로 남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4일 개봉하는 ‘스위치’는 안하무인 톱스타 박강(권상우 분)과 생계형 매니저 조운(오정세)의 인생이 뒤바뀌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민정은 박강의 첫사랑 수현 역을 맡았다.

현실 속 수현은 성공한 유학파 아티스트다. 10년 전 미국 유학을 위해 박강과 이별을 택했다. 하지만 뒤바뀐 세상에서는 유학을 포기하고 박강과 결혼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 무명 배우인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동네 화실 운영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생계를 이어간다.

이민정은 ‘스위치’를 복귀작으로 택한 이유로 ‘공감’을 꼽았다.

“제가 공감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도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기를 키워 본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아들로 등장하는 아역 배우 김준을 실제 아이로 질투했다는 뒷이야기도 털어놨다.

“지방에서 준이랑 계속 촬영하니까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나랑 안 놀고 왜 그 형이랑 계속 같이 있어?’ 라면서 촬영장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준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부터는 TV에 준이가 나올 때마다 ‘준이 형이다’ 하고 얘기해요.”

극중 수현은 자신이 톱스타라고 착각하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새 프로파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민정은 “수현이와 싱크로율은 80% 정도”라면서 “거의 비슷하지만 수현이는 저보다 더 착한 것 같다”며 솔직하게 답했다.

‘스위치’ 속 박강은 배우로서 부모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어딘지 모를 공허함을 느낀다. 인생이 뒤바뀐 뒤 인기도 돈도 없는 무명 배우가 되지만 그를 응원하는 가족들을 통해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된다.

이민정은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는지 묻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으로는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꼽았다.

“처음에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아빠가 ‘이제 고생 그만해’라며 그만두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서른이 되기 전까지 세상이 나를 모르면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죠. 만약 그만뒀다면 ‘스위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웃음)”

“본드 칠해 주름 생겼지만 영광의 훈장”

‘재벌집 막내아들’ 조연
김현, 진양철 부인 연기



‘재벌집 막내아들’ 김현 /JTBC 제공

지난해 말 시청자들의 아쉬움 속에 막을 내린 ‘재벌집 막내아들’ (이하 ‘재벌집’)은 주연, 조연할 것 없이 모든 배우가 제 몫을 해내며 극의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었다.

‘재벌집’에서 한 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깨끗한 인상으로 카리스마를 뽐내던 진양철 회장 (이성민 분) 곁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조연 배우들을 최근 종영을 기념해 만났다.

진양철의 부인으로 순양재국의 물도 없는 개국 공신 이필옥을 연기한 배우 김현은 “드라마나 영화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1971년생인 그는 이필옥의 50~70대를 연기하느라 촬영하기 전 특수 분장을 두 시간 넘게 받아야 했다.

그는 “본드를 칠해 주름살을 만들다 보니 그대로 얼굴에 주름이 남았다”며 “속상하기도 하지만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고 웃어 보였다.

김현은 “드라마 속 이필옥의 욕심과 욕망을 관객에게 설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 말했다.

극 중반까지만 해도 현명한 부인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 비쳤던 이필옥은 남편이 혼외자의 자식인 진도준(송중기)을 순양의 후계자로 눈여겨보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사주한다.

김현은 “이필옥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순양을 물려받아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혼외자 진윤기(김영재)에게 위로를 받는 장면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떠올렸다.

/연합뉴스

뉴진스, 흥행 잇나...새 싱글 ‘OMG’ 발표

“관계의 미묘함 담은 노래”

결그룹 뉴진스가 선공개곡 ‘디토’ (Ditto)에 이어 2일 첫 싱글 ‘OMG’를 발표하고 올겨울 흥행 가도를 이어간다.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OMG’는 뉴진스가 처음 맞이하는 이번 겨울, 조금은 낯선 배경 속에서 느끼는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다.

힙합 드림 소스와 퍼커션을 기반으로 UK 개러지·트랩 리듬을 섞은 통통 튀고 신나는 힙합 아르앤드비(R&B)다.

어도어는 “서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한편에 공존하는 묘한 거리감, 조심스러움, 낯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며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관계라는 서사에 집중해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뉴진스 특유의 트런던틱한 음색을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해 또 다른 개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데뷔곡 ‘어텐션’ (Attention)과 ‘하이프 보이’ (Hype boy)를 정상에 올려놓아 가요계에 신인 결그룹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달 발표한 선공개곡 ‘디토’ 역시 공개 직후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등 주요 플랫폼에서 1위를 석권했다.

‘디토’는 미국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



결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17위), ‘글로벌 20’ (36위) 등에도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생활의 발견스페셜 7:00 해 불만한 아침 1부 8:05 해 불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내눈에 광각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두뇌공조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활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보보보 좋아좋아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테마기행 7:00 꼬버스타요 7:15 출몰! 슈퍼핑크 7:45 고고!노 우리동네공룡 8:00 당동명 유차원 8:20 로보카 폴리 9:05 슈퍼더퍼 잉글리시 9:20 빅블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파피노 5:00 EBS 뉴스 6:00 생활송 워드지 해결단 7:00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인간과 바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프라임 10:45 건축탐구 집 11:55 클래식세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이웃집 찰스 8:30 내눈에 광각지 9:00 KBS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더 라이브 11:30 KBS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태풍의 신부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50 두뇌공조 11:00 사정님 귀는 당나귀귀	6:05 생활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호재메이트 10:30 PD수첩 11:30 100분 토론	6:50 생활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8:00 세상에 이런일이 10:00 트롤리 11:10 산발 붓고 돌싱포맨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1월 3일 (음력 12월 12일)

 <p>48년생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하라. 60년생 손해 불일 생기니 살펴 가라. 72년생 좋은 일로 집안 경사가 따른다. 84년생 작은 지출이 생긴다.</p>	 <p>52년생 이웃사촌이 최고다. 64년생 사람의 일은 단정하지 마라. 76년생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다. 88년생 의사 표현에 힘써라.</p>	 <p>44년생 작은 지혜로 인정받는다. 56년생 변명은 하지 말고 인정하라. 68년생 언행에 신경 써야 오해받지 않는다. 80년생 소망하는 일이 생긴다.</p>
 <p>49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61년생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지 마라. 73년생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긴다. 85년생 감정에 솔직하라.</p>	 <p>41년생 불확실한 추측은 하지 마라. 53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겠다. 65년생 추진하던 일에 성과를 얻겠다. 77년생 가족 간에 갈등 생긴다.</p>	 <p>45년생 자신 없으면 물러서라. 57년생 미리 사서 걱정하지는 마라. 69년생 책임감으로 마무리를 잘하게 된다. 81년생 마음 쓰이는 일 생긴다.</p>
 <p>50년생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 전환하라. 62년생 마음먹은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74년생 생 여가 활동 계획을 세운다. 86년생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된다.</p>	 <p>42년생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마라. 54년생 작은 고민거리가 생기겠다. 66년생 명예와 부귀를 얻는다. 78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말고 유지하라.</p>	 <p>46년생 가정에 소홀히 하지 마라. 58년생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다. 70년생 말을 바꾸면 실없는 사람으로 몰린다. 82년생 가족과 의논하라.</p>
 <p>51년생 한가지의 일에만 열중하라. 63년생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막힘없이 일의 진행이 빠르다. 8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p>	 <p>43년생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 55년생 웃음꽃 피는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67년생 용기를 가지면 결실 있다. 79년생 노력에 대가가 있다.</p>	 <p>47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59년생 기회 놓치지 말라. 71년생 길한 소식이 눈앞에 있다. 83년생 쉽게 들은 돈은 쉽게 나간다.</p>